

단일개념 본초 효능 DB를 이용한 처방해설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본초학교실·방제학교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병욱·서부일·엄동명·김상찬*

用本草の效能基本資料方劑解說方法研究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本草學教室·方劑學教室
韓國韓醫學研究院
李丙旭·徐富一·嚴東明·金相贊

对于研究配合好几种药材治疗疾病的方剂, 已有很长一段时间了。但是我们仍然无法详细说明定的组合原理。并且也没有一定的根据来判断每个人对方剂的说明方式, 是不正确无误。而且对方剂的说明, 大多数是采用定的主治症状来解说定的效果。所以若没有详细的主治和症状的资料时我们就难以由效果来组合方剂。根据上还所说的困难, 我们认为需要研究設法以组成的药材来说明方剂效果。并且将它转换为系统化。我们已进行了研究, 在此详细报告其研究效果。

Key Words: 本草效能, 方剂学, 用语, 标准

I. 서론

여러 종류의 약물을 함께 배합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서한시기의 의서에서 이미 발견된다. 그러나 여러 약물로 조성된 “藥方”의 구성 원칙에 관해서는 동한시기로 소급할 수 있다. 더군다나 동한후기 장중경의 『상한잡병론』은 약방을 운용할 때 매우 유통성 있는 변증의 특징을 나타내었는데, 약방의 구성이 효과가 같은 몇 가지 약물을 함께 섞는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 높은 치료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조방 이론과 방법이 숨어 있다. 여러 약물로 조성한 “藥方”에 구비된 총체적인 공능은 단미약의 공효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고, 이미 상대적으로 독립된 학문으로 형성되었다.

현대 중의학에서는 2종 이상의 약물로 조성된 약방을 “方劑”라 하고,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이론적인 탐구를 “방제학”이라 한다¹⁾. 이러한 2천년이 넘는 방제학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본초의 조합을 통한 방제의 구성원리를 원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더라도 마땅히 正誤를 판단할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처방에 대한 해설의 많은 부분이 主治病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치병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효능으로 방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본초학에서 약물에 대한 지식이 ‘특정 병증을 치료한다’는 주치 정보 제공에서 ‘氣味論’의 추가와 추상적 개념에 속하는 ‘효능’이라는 요소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병증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이도 기미와 효능을 중심으로

* 교신저자 : 김상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053-770-2247, sckim@dhu.ac.kr

1) 廖育群 著, 박현국 외 2인 共譯. 중국과학기술회사의학편. 서울. 일중사. 2003. p.300.

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점과 비교한다면 본초학에 비하여 방제에 대한 분석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제학에서 방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설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의 마련은 최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문헌연구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문헌을 이용한 연구 방법은 『藥對論』²⁾ 등과 같이 약제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을 이용한 약제조합의 효용성 연구는 다시 기존의 方書에 기재된 방제의 효능을 추출하여 약제조합에 따른 효능을 유추하는 방법과 본초 하나하나의 효능을 조합하여 방제의 효능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약제조합의 결과값이 '1+1이 2가 아니다'라는 방제원리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제의 원리가 만들어져 약물의 七情, 君臣佐使 등과 같은 이론이 제시되던 시기의 본초지식은 효능중심이 아닌 주치증 중심이었으므로 효능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며, 또한 『東醫處方學』³⁾의 방의에서도 방제의 구성약물의 효능으로 설명을 시도한 점으로 볼 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초의 효능으로 방제의 방의를 분석하는 방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초의 개별적인 효능으로 방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첫째, 방제 구성의 데이터에 포함된 약제의 이명으로 인한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본초의 효능을 표현하는 용어의 개념을 중심으로 방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선

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단, 본 연구의 취지가 본초의 효능을 이용한 방제의 해설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있는 만큼 본초의 이명에 대한 처리와 본초 효능의 동일개념 여부의 판단과 대표용어의 선정은 연구자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한의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본초 효능 자료로 『본초요략』을 사용했고, 방제 구성 정보는 『방약합편』에 기재된 방제 약제 구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방제의 효능과 기존의 효능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방제의 선정은 『동의임상방제학』의 汎證主方 21방제를 선정하였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효능은 『방제학』의 효능과 비교하였다.

■ 연구 대상으로 『본초요략』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본초학 전문가의 저술이다.
- 저명한 저술을 근거로 정리된 본초서적이다.
- 효능용어 추출에 적합한 편집체계를 가지고 있다.
- 텍스트 파일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다.

■ 연구 대상으로 『방약합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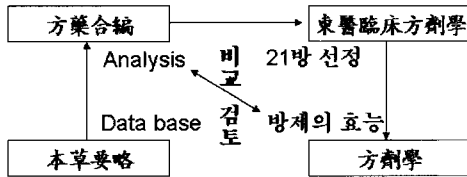
-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方書이다.
- 사용된 약제의 종류가 비교적 적어 『본초요략』에 포함된 본초 효능정보의 활용도가 높았다.
- 기존에 구축된 처방 구성 데이터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 연구 대상으로 『동의임상방제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방약합편의 방제들을 방제의 구성약물을 위주로 분류하여 21개의 기본방을 제시하였다.
- 병인에 따른 21개의 주방을 제시하였다.

2) 陳維華 等著 盧映濤 編. 藥對論. 서울. 일지사.1996.
3) 동양의학연구소 편저. 東醫處方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3.

- 연구 대상으로 『방제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中醫藥學高級叢書로서 방제학 단일서적으로서 많은 분량의 자료를 담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방제학의 교재와 효능이 거의 동일하다.



【그림 6】 처방의 효능 분석 과정

2. 연구수행 과정

본 연구는 Microsoft의 Access2003, MS-Word 2003, 한글2005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초명, 효능 용어 등에 대하여 각각의 ID를 부여하여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실험적인 연구라는 것을 감안하여 별도의 ID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문자열의 속성에 중복 불가능한 ID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ID체계를 대신하였으며 처방명에 대해서는 동일 처방명이 존재하여 별도의 ID를 설정하였다.

1) 본초 효능 테이블의 구축

본초 효능 테이블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본초요약 원문테이블 구축

『본초요약』의 원문을 모두 DB의 테이블에 입력하고 별도로 본초목록 테이블을 추가로 만든다.

(2) 문헌상 효능 입력

원문테이블에서 약재명과 효능용어를 추출한다.

(3) 복합용어의 분리

문헌에 기록된 효능용어 중 여러 용어가 조합되어

형성된 용어는 단일 개념을 가진 용어로 분리한다.

(4) 개념추출 및 대표용어 선정

분리된 단일 용어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동일한 개념을 가진 여러 용어를 대표용어로 통합한다.

(5) 효능용어와 대표개념 연결

원래의 효능용어와 대표개념 효능용어를 연결한다.

2) 방제 구성 테이블 구축

(1) 처방명 목록 테이블 구축

처방명은 동일명칭이 다수 존재하므로 별도의 ID를 설정하여 테이블을 구축하며 ID로 처방구성 테이블과 연결된다.

(2) 처방구성 테이블 구축

처방구성 테이블은 처방명 테이블과 ID로 연결되며 약재명, 분량, 수치 정보를 포함한다.

3) 본초 효능 테이블과 방제 구성 테이블의 연결 테이블 구축

(1) 본초 표준 변환 목록 테이블 구축

처방구성에 포함된 약재명에 이명이 있을 경우 본초효능 용어의 추출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약재명과 이명을 연결하는 테이블을 구축한다. 다만, 약재의 이명 중 대표 약재명과 동일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명에서 제외시켰다.

(2) 본초효능과 처방구성의 연결

쿼리4를 이용하여 본초명과 단일개념 대표 효능 용어를 연결하고 처방명 테이블, 처방구성 테이블,

4) "SELECT 본초목록.본초명, [4효능용어와 대표개념 연결 목록].대표개념용어 FROM (본초목록 INNER JOIN 0본초_문헌상_효능 ON 본초목록.본초명 = [0본초_문헌상_효능].본초명) INNER JOIN [4효능용어와 대표개념 연결 목록] ON [0본초_문헌상_효능].효능 = [4효능용어와 대표개념 연결 목록].효능용어원문;"

본초 표준 변환 목록 테이블을 차례로 연결한 뒤 본초 표준 변환 목록 테이블의 표준 본초명과 퀴리의 본초명을 연결하여 본초 효능을 이용한 처방의 효능을 알 수 있다. 다만 柿霜과 같이 『본초요약』의 본초 목록에 없는 본초에 대한 효능은 제시되지 않는다.

Ⅲ. 결 과

단미약재 효능을 바탕으로한 방제의 효능분석연구결과를 기존 방서의 효능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의임상방제학의 범중주방 21방을 선정하였다. 21방은 平胃散, 二陳湯, 麻黃湯, 桂枝湯, 香蘇散, 小柴胡湯,

香薷散, 五苓散, 胃苓湯, 川芎茶調散, 白虎湯, 大承氣湯, 四物湯, 理中湯, 四君子湯, 六味地黃丸, 八味地黃丸, 茯神丸, 加減生脈四物湯, 三稜散, 瓜蒂散이지만, 麻黃湯, 桂枝湯, 川芎茶調散, 茯神丸, 加減生脈四物湯, 三稜散, 瓜蒂散 등의 7개방은 방약합편에 기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14방을 『방제학』의 효능과 비교하였으며, 비교 결과 『방제학』에서 제시한 효능과 일치하는 효능에 대하여 밑줄을 그었다. 가중치적중구간은 처방구성약물의 효능출현 수에 따라 값을 부여하고 높은 값을 가진 효능을 상위에 배치시키며 동일 점수는 공동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비교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방제명	DB를 이용한 방제의 효능분석	방제서의 효능	가중치적중구간	
平胃散	去濕(5)/ 補脾(4)/ 化痰, 調和諸藥(3)/ 行氣, 和胃, 補氣, 止咳, 發汗, 解毒, 解表(2)/ 清熱, 散寒, 消積, 溫肺, 定喘, 生津, 溫脾, 健胃, 溫胃, 去風, 止痛, 明目, 止嘔, 緩急, 安神, 潤肺, 補血, 利氣, 解藥毒, 降氣, 除穢(1)	燥濕運脾 行氣和胃	1/4	2
			2/4	2
二陳湯	去濕, 化痰(3)/ 止嘔, 止咳, 補脾, 調和諸藥, 解毒(2)/ 利氣, 止痛, 補氣, 緩急, 和胃, 溫肺, 發汗, 散結, 散寒, 溫脾, 消痞, 健胃, 溫胃, 潤肺, 清熱, 降氣, 解表(1)	燥濕化痰 理氣和中	1/4	2
			2/4	1
			3/4	1
香蘇散	去濕(4), 補脾(4)/ 調和諸藥, 解表(3)/ 和胃, 散寒, 發汗, 行氣, 補氣, 止咳, 化痰, 止痛, 解毒(2)/ 清熱, 溫肺, 去風, 生津, 寬中, 疏肝, 潤肺, 溫脾, 緩急, 安神, 溫胃, 安胎, 明目, 健胃, 止嘔, 解藥毒, 開鬱, 利氣, 調經, 除穢, 補血, 解魚毒(1)	疏散風寒 理氣和中	1/4	1
			2/4	3
			3/4	1
小柴胡湯	清熱(5)/ 去濕, 補脾, 補氣, 調和諸藥, 解毒(3)/ 疏肝, 化痰, 和胃, 安神, 止咳, 生津, 止嘔(2)/ 和解, 溫肺, 止痛, 散寒, 散結, 升陽, 止渴, 緩急, 消痞, 發汗, 補肺, 益智, 溫脾, 健胃, 安胎, 止血, 潤肺, 溫胃, 解表, 解藥毒, 涼血, 開鬱, 降血壓, 補血, 降氣(1)	和解少陽	1/4	0
			2/4	1
			3/4	1
香薷散	去濕(3)/ 和胃, 行氣(2)/ 清暑, 解表, 消積, 化痰, 消腫, 補脾, 發汗, 定喘, 解毒, 利尿, 降氣(1)	祛暑解表 化濕和中	1/4	2
			2/4	2
五苓散	利水(3)/ 利濕, 補氣(2)/ 補陽, 安胎, 去濕, 散寒, 補脾, 固表, 泄熱, 止	利水滲濕	1/4	2

	痛, 治瘡, 止汗, 止瀉, 通血脈	溫陽化氣	2/4	1
胃苓湯	去濕(6)/ 補脾(5)/ 補氣(4)/ 利水, 止痛, 化痰, 調和諸藥(3)/ 行氣, 和胃, 散寒, 發汗, 止咳, 止汗, 解毒, 解表, 利濕, 補血(2)/ 止嘔, 消積, 安胎, 去風, 生津, 溫胃, 止瀉, 柔肝, 明目, 斂陰, 緩急, 泄熱, 定喘, 治瘡, 安神, 潤肺, 寬中, 固表, 溫脾, 溫肺, 健胃, 平肝, 清熱, 補陽, 解藥毒(1)	祛濕和胃 行氣利水	1/4 2/4 3/4	2 2
白虎湯	清熱, 消腫(3)/ 健胃, 止咳, 補陰, 調和諸藥, 解毒(2)/ 生津, 止血, 止渴, 潤腸, 斂瘡, 潤燥, 補氣, 潤肺, 補脾, 去風, 生肌, 清肺, 去痰, 排膿, 止痒, 止痛, 緩急, 利水, 解表, 除煩, 通便, 解肌(1)	清熱生津	1/4 2/4	1 1
大承氣湯	消積, 去濕, 行氣, 活血, 化痰(2)/ 清熱, 瀉下, 去瘀, 定喘, 導滯, 攻積, 斂瘡, 消腫, 涼血, 破氣, 解毒, 軟堅, 通經, 降氣, 消痞(1)	峻下熱結	1/4 2/4	0 2
四物湯	補血, 止痛(3)/ 利血, 潤腸, 行氣, 排膿, 寬中, 柔肝, 去濕, 斂陰, 活血, 消腫, 去風, 補精, 平肝, 止汗, 通便, 開鬱, 補陰, 調經, 補髓(1)	補血和血	1/4 2/4	1 1
理中湯	補氣(4)/ 補脾(3)/ 溫脾, 溫胃, 止瀉, 調和諸藥, 利水(2)/ 去寒, 益智, 補肺, 安胎, 止汗, 溫肺, 止痛, 清熱, 生津, 行氣, 安神, 去濕, 澀腸, 止血, 清肝, 緩急, 健胃, 溫經, 明目, 潤肺, 止渴, 化飲, 清肺, 化痰, 固表, 止咳, 解酒毒, 通血脈, 通淋, 補陽, 解毒(1)	溫中祛寒 補氣健脾	1/4 2/4	4 1
四君子湯	補脾, 補氣(4)/ 安神, 調和諸藥, 利水(2)/ 止咳, 止汗, 去濕, 益智, 補肺, 清熱, 寧心, 安胎, 固表, 潤肺, 止痛, 生津, 健胃, 和胃, 止渴, 緩急, 解毒, 利濕(1)	益氣健脾	1/4 2/4 3/4	2
六味地黃丸	補陰, 補腎, 利水, 補脾, 利濕(2)/ 補精, 和胃, 固澀, 固精, 安神, 寧心, 收斂, 止帶, 泄熱, 活血, 去瘀, 補氣, 補肝, 補肺, 補血, 補髓, 涼血, 清熱(1)	滋陰補腎	1/4 2/4	2
八味地黃丸	補陽(4)/ 補腎, 去寒, 利濕, 補脾, 補陰, 利水(2)/ 和胃, 去風, 固澀, 消腫, 去瘀, 止痛, 安神, 寧心, 收斂, 救逆, 去濕, 散寒, 止帶, 固精, 泄熱, 活血, 消積, 清熱, 補氣, 補精, 補肝, 補肺, 補血, 補髓, 解毒, 通血脈, 涼血, 消癥(1)	補腎助陽	1/4 2/4	2

【표 1】 방제학 교재와 시스템에서 추출된 효능 비교결과

IV. 결 론

본초효능을 이용한 방제 효능 분석결과와 『방제학』에서 제시한 효능을 비교한 결과 소시호탕과 대승기탕을 제외한 방제의 효능들이 전체 효능 가중치 1/4과 2/4 영역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헌에서 제시한 효능이 의미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한건도 없었으므로 본초효능 DB를 이용한 방제해설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효능해설에 있어서 비중이 적은 효능을 제외하고 비중이 큰 효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논문>

1. 이병욱, 신상우, 김은하. 송본 상한론의 한중 Code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4).
2. 김혜선. 통합의학언어 시스템(UMLS)의 구성 및 적용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2001. 32(2).

<단행본>

1. 서부일. 본초요략. 대구. 벤엘기획. 2004.
2. 廖育群 著.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共譯. 중국 과학기술사의학편. 서울. 일중사. 2003.
3. 陳維華 等著. 盧映濤 옮김. 藥對論. 서울. 일중사. 1996.
4. 동양의학연구소 편저. 東醫處方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3.